

TV 1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20 웰컴 투 시월드(재)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30 채널A 아침뉴스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 손을 잡아>	00 KBC 뉴스지금 30 남도의 아침 세계4대미형 여수는 지금
8 10 쾌도난마	25 아침매장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두 여자의 방>
9 4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은화>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50 시사 특급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방간자전거(재)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11 50 뉴스 와이드	00 여풍당당 55 바른말 고운말(재)	10 KBS 스포츠 타임 20 사랑의 가족(재) 50 위기탈출 넘버원(재)	00 특집다큐멘터리 <리버 오디세이2부>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00 KBS 뉴스12	55 비타민(재)	00 MBC 정오뉴스 20 주말드라마 <사랑해서 남주나>(재)	00 SBS 12 뉴스 30 테라스페셜(재)
1 00 그때 그 사람 스페셜(재)	00 KBS 결집선 <학교2013>(재)		35 MBC 스포츠 2013 경주국제마라톤	30 KBC 특별기획 하늘에서 본 남도 (재)
2 10 토티링평평	00 KBS 뉴스 10 특별생방송 행복한 동행 중소기업이 함께 합니다 1~2부	00 문화의 달 걸작 다큐멘터리 이카로스의 꿈 포블로그	35 컬투의 배란다쇼 스페셜	00 SBS 뉴스 10 2013 한국오픈 골프 1R
3 20 직언직실		00 KBS 뉴스타임 10 오강민족 세상은 맛있다 35 못말리는 라바와 비트피터 45 이기종별레 포포	00 MBC 경제 뉴스 10 헬로 키즈 이하! 지구탐험대	
4 30 쾌도난마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 네트워크 특선 <보물섬>	00 구름방 2 30 TV 유치원	00 우리 아이 뇌를 깨우는 101가지 비밀(재) 30 또르르 방울이 친구들	00 최강! 탐플레이트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코파반장 25 특선다큐 50 2013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2차전 (LG·두산)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0 KBC 저녁뉴스 35 내마음의 크레파스
6 00 뉴스 현장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20 MBC 가요베스트	05 새삼발견 유재카
7 20 웰컴 투 돈월드(재)	00 KBS 뉴스 7 30 한국인의 밥상		15 일일연속극 <오로라 공주>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저널 때때부때 20 일일드라마 <웃남이 주의보>
8 30 생방송 오픈 스튜디오	25 일일연속극 <지성이면 감천>		55 MBC 특별기획 <제왕의 딸 수백향>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면일이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 9		30 컬투의 배란다쇼	
10	00 2013 KBS 대기획 3D 입체영상북원 <의결 8월간의 축제 2편> 50 2013 가을밤의 콘서트	00 수목드라마 <비밀>	00 수목미니시리즈 <메디컬 탐험>	00 드라마스페셜 <삼국지>
11 00 웰컴 투 시월드	30 KBS 뉴스리인	10 해피 투게더	20 드라마 페스티벌 <소년, 소녀를 다시 만나다>	20 자기가
12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①:30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재)	00 KBS 글로벌24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①:00 KBS 뉴스 10 KBS 결집다큐멘터리	30 세상의 모든 다큐 <식물의 지능을 발견하다>	55 MBC 뉴스24 ①:15 스포츠 다이아리 30 MBC 다큐프라임 <아이 러브 유>	40 나이트리인 ①:10 풋볼 매거진 골!

EBS

06:10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용서>	11:20 세계테마기행 <꿈틀대는 생명의 땅, 아이슬란드 4부 -고래의 꿈, 달비크>	15:30 비두와 친구들	20:00 EBS 뉴스
07:00 곤	12:00 EBS 정오 뉴스	15:45 똑똑박사 에디	20:20 영의의 건강비결
07:15 마이의 모델	12:10 연중기획 <폭력없는 학교>	16:00 덩동명 유치원(재)	<심장건강의 시작 심혈관질환-관혈형 교수>
07:30 꼬마버스 타요	13:05 지식채널e	16:20 이기 고릴라 동동	20:50 세계테마기행 <신세계의 발견, 흑해 4부 -용사의 바다>
07:45 로보카 폴리	13:10 즐거운 수학 EBSMATH	16:30 코코몽2	21:30 한국기행 <강화>
08:00 덩동명 유치원	13:20 레오의 우주 대모험	16:45 모야 모야(재)	21:50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용서>
08:20 풍선 코끼리 발루보	13:30 비두와 친구들	17:00 뽀빠이 뽀빠이(재)	22:45 극한직업
08:35 방구대장 뽀뽀이	13:45 꼬마 철학자 추고	17:15 꼬마버스 타요	23:15 EBS 역사 특강 <G2시대에 병자호란을 돌아보다>
08:50 모야 모야	14:00 지난 해리우스 박사님	17:30 풍선 코끼리 발루보	24:05 지식채널e(재)
09:05 코코몽2	14:15 장난감 나라의 노디	17:45 로보카 폴리	24:10 EBS 스페이스 공감
09:20 생활의 비법	14:30 몬스터 수학나라	18:00 마이의 모델	
10:00 한국기행	15:00 피터팬	18:15 곤	
10:20 영의의 건강비결		18:30 생방송 보니하니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9:30 TV로 보는 원작 동화	

EBS플러스1

00:00 기본과 특별한	<한국사> 11:40 <화학II>
00:50 내신 6강	<수학(하)> 12:30 박봉의 이수로 만나는 경제
01:40 포스	<문학I> 13:00 탐스런 <생명과학II>
02:30 <문학II> 14:00 <지구과학II>	
03:20 <적분과 통계> 15:00 인터넷 수능 <문학(A)>	
04:10 <기하와 벡터> 16:00 EBS N제 <생활과 윤리>	
05:00 <수학II> 17:00 인터넷 수능 <듣기(B)>	
05:50 탐스런 <물리I> 18:00 7030 파일럿 실전 모의고사	
06:40 고교특강 올림 #포스 <영어독해의 기본(2)> 19:00 <영어B형>	
07:30 <Basic Grammar> 20:00 <영어A형>	
08:20 탐스런 <화학I> 21:00 <영어B형>	
09:10 <생명과학I> 22:00 <동아시아>	
10:00 <지구과학I> 23:00 <세계사>	
10:50 <물리II> 23:50 지식채널e	

EBS플러스2

07:00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비 강좌	16:40 <과학 6-2>
07:30 영시의 스승	17:10 통통가족
08:20 수학의 원리 마테미카	17:20 역사 e 뉴스
08:30 경비지도사 시험대비강좌	17:35 동코의 동화책
09:10 <국어I> 17:45 인형극장 옛날 옛날에	
09:50 <수학I(상)> 18:00 특목! 직업이 보인다	
11:10 <도덕II> 18:30 얼마있어 살아보기	
11:50 <수학2-2> 19:00 극한직업	
12:30 <과학> 19:30 원더풀 싸이언스(7)	
13:10 <중학 3학년> <도덕> 20:20 EBS 문화시리즈 <명동백작>	
13:50 <중학 개념 끝장내기> <세계사> 21:20 등업신공 <역사I>	
14:30 <문학> 22:00 <중학 퍼펙트 체크업> <과학3-2>	
15:10 <중등 내용 남남> <과학3-2> 22:40 <중학 3학년> <수학3-2>	
15:40 <과학4-2> 23:20 <생활의 비법>	
16:10 <과학5-2> 24:00 EBS e 생활영어	

知天命이 모든 오늘의 운세

10월 17일(음 9월 13일 丙辰)

子	36년생 살펴 볼 필요가 있다. 48년생 내세운다면 곤란해진다. 60년생 의도대로 실행한다면 무난하리라. 72년생 주변의 평을 뒤늦게 보면 유익할 것이다. 84년생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에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84, 12
丑	37년생 거침없는 행보를 내딛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49년생 안전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 61년생 복록의 원인이 생긴다. 73년생 지나친 경계심은 활동 반경을 축소시킨다. 85년생 절제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01, 55
寅	38년생 정기적으로 해야 할 일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50년생 지극히 당연한 일임을 알지라. 62년생 과욕하게 되면 절망이 따르는 법이다. 74년생 직기를 도과하였다면 무용지물이 되리라. 행운의 숫자 : 79, 61
卯	39년생 의존적이라면 부자유이 생길 수밖에 없다. 51년생 감정을 숨기지 말고 할 말은 하자. 63년생 소신껏 행한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느니라. 75년생 위험한 상황에 노출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다. 행운의 숫자 : 72, 11
辰	40년생 일상의 순서에 충실 하자. 52년생 새로운 것이 뜻밖의 수입으로 연결 될 수 있는 운수다. 64년생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한 때이나. 76년생 큰 문제는 없으나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모습이다. 행운의 숫자 : 43, 20
巳	41년생 가까운 이가 괴로움을 안겨다 준다. 53년생 이용당할 수 있음을 간파하지 말라. 65년생 상황에 따라 길흉이 바뀌어 변화가 수생하다. 77년생 주변 것에 치중하다보면 부수적인 것에 소홀해진다. 행운의 숫자 : 13, 35

午	42년생 기회가 왔으니 망설이지 말고 진행하라. 54년생 기쁨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66년생 처음처럼 변함없이 임해야 유지할 수 있다. 78년생 타협해야만 현저하게 좋아진다는 사실을 알라. 행운의 숫자 : 62, 28
未	43년생 빨리 포기할수록 이익이다. 55년생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 67년생 확실히 대처해 나간다면 늦게나마 해결 되리라. 79년생 급격한 변화가 보이나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68, 73
申	44년생 핵심을 찾아야만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56년생 뜻밖의 곳에 지출해야 할 곳이 생긴다. 68년생 근본적인 것을 파악하지 않으면 혼선에 빠질 수 있다. 80년생 허점을 보인다면 흥의 원인이 되리라. 행운의 숫자 : 05, 46
酉	45년생 학수고대 하여 왔던 바의 실마리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57년생 자신의 처지를 직시하고 형편에 맞게 처신하면 된다. 69년생 일시적인 휴식이 효과적이다. 81년생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37, 22
戌	46년생 굴러 들어온 복덩어리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라. 58년생 대범해야 큰일을 감당하는 법이다. 70년생 투쟁을 열어 보면 실망할 것이다. 82년생 철저하게 제어해야만 많은 것을 지킬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0, 53
亥	47년생 아주 쉬운 일이나 부담 없이 임해도 된다. 59년생 하루 종일 분주하게 돌아다닐 것이다. 71년생 분명함 입장을 밝혀야만 하느니라. 83년생 상호간에 대한 배려가 순조로움을 부르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3, 88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감정표현 서툰 시온 연기하며 슬펐어요”

‘굿닥터’서 자페아 레지던트 역 열연한 주원

“순수한 시온을 연기하면서 제 자신도 ‘힐링’이 됐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데 서툰 자페아면서도 천재적인 암기력을 지닌 소아과 1년차 레지던트. 그렇지만 순수한 사랑에 눈을 뜨는 남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지극히 모순적인 이러한 캐릭터를 온몸으로 녹여낸 이가 있다. ‘굿닥터’의 배우 주원(26·사진)이다.

다음 달 막을 올리는 뮤지컬 ‘고스트(GHOST)’ 연습에 한창인 그는 어딘가 말투가 극 중 시온과 무척이나 닮았다.

“‘굿닥터’는 대학병원 소아과를 배경으로 주인공 박시온을 비롯한 차윤서(문채원), 김도한(주상욱) 등 전문의들의 활약을 담은 의학 드라마.

그러나 카리스마 넘치는 의사가 화려한 기술을 뽐냈던 ‘하얀 거탑’·‘골든 타임’ 같은 기존의 의학 드라마와는 달리 자페아를 ‘젊은’ 시온은 이를 연기하는 주원 특유의 따뜻한 매력과 어우러지며 진한 사람 냄새를 풍겼다.

“자페아를 촬영하며 시온의 감정을 조금씩 알게 되니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는 조금씩 성장을 하는데, 이를 연기하는 저는 슬픈 겁니다.”

주원은 “극 중 ‘세상에 제 편은 없었습니다’ 같이 자학을 하는 듯한 대사가 많았다”며 “이를 연기하는데 마음이 아파 연기하기가 무척 힘들었다”고 되돌아봤다.

더구나 시온이 타인과 감정을 공유하는 데 애를 먹는 자페아라는 설정은 연기의 폭을 대폭 줄여버렸다. 시종일관 무표정한 얼굴로 감정을 드러내야 했고, 상대 배우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서도 연기 호흡을 일과야 했기 때문이다.

“시온의 감정선을 알 수가 없었어요. 때문에 ‘시온이 화낸다’ 같은 지문이 쓰여 있지 않았을뿐더러 작가님도 ‘표정을 지지 말라’고 주문하셨거든요. 제 편에는 슬픈 연기를 해도 과연 이 감정을 시청자가 알 수 있을지

걱정도 많았죠.”

주원은 그 해답을 ‘눈빛 연기’에서 찾았다. 극 중 동료와 대화하는 장면에서는 상대 배우의 어깨 아래에 시선을 맞췄고, 의사로서 천재성을 드러내야 하는 수술 장면에서는 눈빛에 힘을 줬다. 더욱이 집도 장면에서는 얼굴에 수술용 마스크를 쓴 터라 감정을 표현하는 ‘통로’는 두 눈이 전부였다.

“저는 영화 ‘맨발의 비행기’처럼 ‘너무 가면’ 안 봤죠. 음악가나 미술가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맡은 의사였으니까요. 그래서 ‘중간선’을 지키려 애를 썼습니다.”

주원은 “시온은 특히 책으로 혼자 공부한 스타일이라 감정적인 부분에서 더욱 약한 인물”이라며 “평소에는 눈을 계속뜨려 뜨고 있다가 수술에 들어가면 눈을 일부러 ‘떨랑 떨랑’하게 떴다”고 연기의 포인트를 짚었다.

그는 박시온으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자페아 센터 원장의 도움으로 실제 자페아 두 명을 만나 연기의 ‘힌트’를 얻었다.

자페아 센터 원장은 주원에게 ‘자페아 하면 다들 영화 ‘말아톤’과 ‘맨발의 비행기’를 떠올리는데,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자연스레 이를 연기하는 그의 어깨가 무거워져 터.

“다른 배우들은 평범한 소아과 의사만 연기하면 됐는데, 저는 자페아까지 훈련해야 했으니 고민이 많았죠. 특히 자페아들도 저마다 각각 증상이 다 다르니까. 공통점은 타인과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는 것뿐이네요. 그래서 저는 작품 내내 상대 배우들의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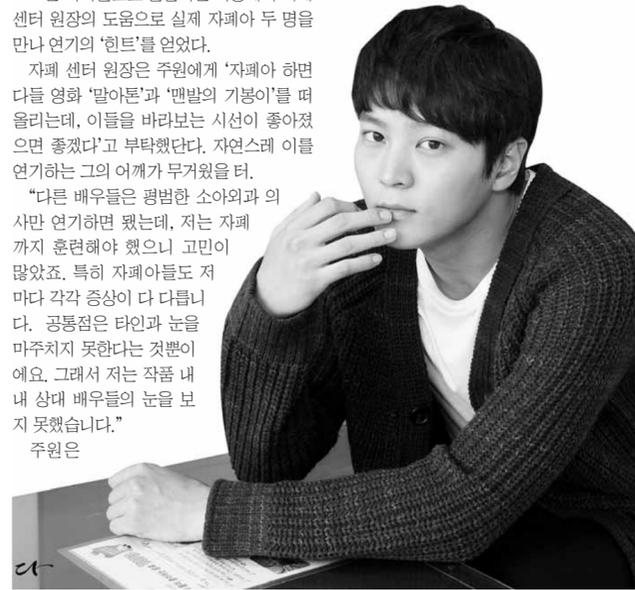
주원은

지난해 여름을 달군 KBS 2TV ‘각시탈’, 국정원 요원으로 변신한 MBC ‘7급 공무원’에 이어 이번 작품까지 TV 데뷔 3년 만에 방송가에서 가장 ‘뜨거운’ 주연급 배우 가운데 한 명으로 우뚝 섰다.

그러나 그는 “시청률은 작품에 꼭 필요한 게 아니다”라면서 그 계기로 전작 ‘7급 공무원’을 들었다.

“시청률을 확인하기 시작한 것은 ‘각시탈’부터입니다. 처음으로 주연을 맡다 보니 ‘잘되지 않으면 나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매일 시청률을 집착했어요. 그렇지만 이후 ‘7급 공무원’에서 시청률이 잘 나오다가 후반에서 떨어지다 보니 이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됐습니다. 그저 연기 자체가 재미있을 뿐이죠.”

연습뉴스



그룹 엑소 1집 ‘XOXO’ 판매량 90만장 돌파

12년만에 밀리언셀러 등극 여부 관심 집중

그룹 엑소가 지난 6월 발표한 정규 1집 ‘XOXO(Kiss&Hug)’의 판매량이 90만 장을 돌파했다.

이 음반은 지난주까지 집계한 결과 8월 발매한 리패키지 음반 46만 9천여 장을 포함해 총 91만 973장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01년 김건중 7집과 그룹 지오디 4집 이후 가요계에 판매량 100만 장을 돌파한 음반이 없는 가운데, 이들이 12년 만에 밀리언셀러에 등극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4월 미니음반 ‘마마(MAMA)’로



인조 엑소-K, 중국어로 노래한 6인조 엑소-M으로 나눠 국내뿐 아니라 중국어권을 동시에 공략하는 전략을 폈다.

이들은 1집 타이틀곡 ‘늑대와 미녀(Wolf)’로 각종 TV 음악 프로그램 정상을 차지했으며, 리패키지 음반의 타이틀곡 ‘으르렁(Growl)’으로 음원 차트까지 1위를 휩쓰는 저력을 보였다.

엑소는 새 음반을 작업 중에 있으며 오는 19일 중국 베이징 베이징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리는 ‘SM타운 라이브 월드 투어 III 인 베이징’을 앞두고 있다.

연습뉴스

TV 하이라이트

흑해의 알려지지 않은 면모 발견



세계테마기행(EBS·밤 8시50분)=흑해는 동쪽으로는 러시아와 조지아, 남쪽으로는 터키, 서쪽으로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북쪽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면해 있는 내륙해다. 한반도의 두 배 크기인 흑해를 두고, 옛 그리스인들은 ‘폰투스 유크레이노스’ 즉, ‘손님을 좋아하는 바다’라고 불렀다.

가칠기로 유명한 이 바다가 잠잠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이름이었다. 흑해(黑海)라는 이름은, 바깥 바다와 해수 교환이 없다 보니 산소가 부족해 죽은 박테리아에서 발생하는 황화수소 때문에 검은 바다색을 띤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흑해를 끼고 있는 러시아와 조지아는 캅카스(코카서스) 산맥을 끼고 있어, 연중 따뜻한 기온을 유지한다. 따뜻한 바다, 흑해의 알려지지 않은 면모를 발견하라 떠나보자.

첫째 딸 상아의 반항 이유는?



내마음의 크레파스(SBS·오후 5시35분)=충북 제천시 덕산면에는 총 20호, 주민 30명 남짓의 작은 마을이 있다.

대부분 어른들이 홀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조용한 이곳을 떠돌아다니는 한 집이 있었으니, 바로 상아(12)네 집. 상아네 집은 동네에서 유일하게 다목적 가정으로 아주 특별한 가정인데, 한 번 낚기도 힘든 생동이를 두 번씩이나 낚은 겹쌍둥이 집입니다.

어머니 제말숙(45)씨는 결혼 7년 만에 첫 번째 딸 쌍둥이를 낳고, 그 후 5년 만에 쌍둥이 남매까지 낳아, 네 명의 자녀를 얻었는데 보기만 해도 기분 좋고, 행복하다.

하지만 요즘 들어 고민 하나가 늘었다고 하는데, 그건 첫째 딸 상아의 이유 없는 반항입니다.

노총각 형구, 첫사랑과 설레는 재회



드라마 페스티벌 ‘소년, 소녀를 다시 만나다’(MBC·밤 11시20분)=광범위 살아가는 노총각 중학교 교사 형구. 미국에서 조셉이라는 학생이 전학을 온다.

그런데 이게 웬일. 그의 엄마는 15년 전 헤어졌던 첫사랑 신나.

예전 마을이 되살아난 형구는 그녀와의 재회를 꿈꾼다. 재미 소설가로 이미 꽤 성공한 신나, 애까지 딸린 이혼녀가 되어 돌아왔지만 그녀의 곁에는 역시나 굉장한 경쟁자가 있다.

하지만 형구는 자기를 따르는 조셉을 방해 삼아 신나에게 다시 한번 도전해보기로 결심한다.

‘드라마 페스티벌’은 한국방송사상 최초로 촬영단계부터 특수영상, CG 등 후반작업까지 완벽한 UHD로 제작됐다.